

2026.06.02.

롯데손해보험의 신용등급 '부정적 검토' 대상에서 제외, 등급전망 부정적 IFSR A-↓ → A-(N)

송미정 금융1실 수석연구원 김태현 금융1실 실장
02.368.5591 02.368.5524
mjsong@korearatings.com thkim@korearatings.com

한국기업평가(이하 '당사')는 2026년 6월 2일자로 롯데손해보험(주)(이하 '동사')의 보험금지급능력평가(IFSR), 무보증 후순위사채, 신종자본증권 신용등급을 **부정적 검토(Negative Review)** 대상에서 제외하고 등급전망을 **부정적(Negative)**으로 부여하였다.

1. 등급감시 해제 및 부정적 등급전망 부여 사유(Key Rating Rationale)

금번 등급감시 해제 및 부정적 등급전망 부여는 1) 경영개선계획 조건부 승인으로 단기적인 불확실성이 완화된 점, 2) 자본관리 부담이 커 매각 성사 여부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한 점, 3) 수익성 및 유동성 관리 부담이 지속 될 것으로 전망되는 점을 반영한 것이다.

[표 1] 등급 조정 내역

회사명	대상	종전		금번	
		등급	Outlook	등급	Outlook
롯데손해보험(주)	IFSR	A-	부정적 검토	A-	부정적
	후순위사채	BBB+	부정적 검토	BBB+	부정적
	신종자본증권	BBB	부정적 검토	BBB	부정적

1) 경영개선계획 조건부 승인으로 단기적인 불확실성이 완화되었다.

롯데손해보험(이하 '동사')이 경영개선요구 조치 이후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에 대해 금융위원회가 조건부 승인하기로 의결하였다. 금번 결정으로 적기시정조치 추가 격상 우려 등 단기적인 불확실성은 완화된 것으로 판단된다.

승인 조건은 '자본적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경영개선계획에 포함된 내용'으로,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3년간 비공개하기로 하였다. 경영개선계획에는 사업비 감축, 부실자산 처분, 인력 및 조직운영 개선 방안도 포함되어 있으며, 동사는 관련 법령에 따라 1년 6개월에 걸쳐 경영개선계획을 이행하게 된다.

[표 2] 적기시정조치 관련 금융위원회 의결

구분	내용
2025.11.05	경영개선권고 조치
2026.01.28	경영개선계획 불승인
2026.03.04	경영개선요구 조치
2026.05.27	경영개선계획 조건부 승인

주)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2) 자본관리 부담이 큰 편으로, 매각 성사 여부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2026년 3월말 동사의 K-ICS비율은 164%로 우수한 수준이나, 경과조치 효과와 해지율 관련 예외모형 적용효과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국내 보험사 중 예외모형을 적용한 회사는 동사가 유일하며, 원칙모형 적용 시 K-ICS비율은 138%로 업계 및 Peer평균을 크게 하회한다. 계리가정 가이드라인 적용 등 보험부채 산출기준 강화, 기발행 자본성증권 Call 행사 시점 도래 등이 추가적인 하방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표 3] K-ICS비율 현황

구분	예외모형	원칙모형
경과조치 적용 전	131.9%	113.7%
경과조치 적용 후	164.4%	138.1%

자료) 경영공시

자본성증권 발행을 통한 자본확충은 쉽지 않아 보인다. 후순위채 조기상환 지연, 적기시정조치에 따른 신종자본증권 이자 미지급으로 채권시장에서 동사 자본성증권에 대한 신뢰도가 저하되었고, 금융당국 역시 기본자본 확충을 통한 자본의 질적 제고를 유도하고 있어 보완자본으로 분류되는 후순위채 및 신종자본증권 발행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기본자본 신종자본증권은 배당가능이익이 없어 발행이 불가능한 상태다.

2027년 도입 예정인 기본자본 규제는 부담을 가중시키는 요인이다. 2026년 3월말 동사의 기본자본 K-ICS비율은 -21%(경과조치 적용 후)로 규제수준(50%)을 크게 하회하고 있다. 경과조치 적용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며, 매각 성사 전까지 유상증자 등 자본확충 가능성이 높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재보험 출재 및 위험자산 매각 등 요구 자본 축소를 위한 다각적인 전략이 실행되어야 할 것이다.

매각 성사 여부 및 매각 과정에서의 자본확충 규모가 향후 자본관리 부담을 좌우할 것이다. 현 지배구조 하에서 유상증자 실행 가능성이 제한적인 만큼, 단기간 내 자본적정성이 큰 폭으로 개선되기는 어렵다. 매각 진행과정 및 자본확충 계획에 대해 중점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3) 수익성 및 유동성 관리 부담이 지속될 전망이다.

보험손익과 투자손익이 모두 높은 변동성을 보이고 있다. 2025년에는 예실차 악화로 당기순이익 513억원, 총자산 세전이익률 0.4%의 부진한 수익성을 보인 데 이어 2026년 1분기에는 투자손익 저하로 198억원의 순손실을 기록했다. 2026년 예실차손익은 2025년 대비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나 제도변화에 따른 일회성 비용 발생가능성, 부실자산 처분 과정에서의 손실 발생 가능성 등은 수익성 개선을 제약하는 요인이다.

RATING ACTION – 롯데손해보험의 신용등급 ‘부정적 검토’ 대상에서 제외, 등급전망 부정적

영업 축소 과정에서 유동성 대응 부담도 커질 수 있다. 사업비 감축을 위해 보험영업 축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며 퇴직연금 적립금 잔액도 감소 추세가 이어지는 등 당분간 보험금 및 퇴직연금 지급 규모가 유입 규모를 상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6년 들어 퇴직연금 부문의 유동성 미스매치 증가로 동사의 유동성비율은 2026년 3월 말 170%까지 하락한 상태다. 유동성비율의 절대적인 수준은 여전히 양호하고 유사시 보유 채권 매각을 통한 대응도 가능하나 자금 유출 확대에 대비한 유동성 관리 강화가 필요하다.

[표 4] 퇴직연금 적립금 및 유동성 비율 추이

(단위: 억원)

구분	2025.09	2025.12	2026.03	2026.04	
				금액	비중
총 적립금	65,993	65,283	62,115	60,586	100%
DB	49,572	50,809	48,515	47,405	78%
롯데계열	31,518	30,535	29,266	28,587	47%
롯데계열 외	18,054	20,274	19,249	18,818	31%
DC	7,219	6,757	6,441	6,266	10%
IRP	9,202	7,718	7,160	6,916	11%
유동성비율	199.4%	210.5%	169.6%		

주) 유동성비율=잔존만기 3개월 이내 자산 등/직전 1년간 월평균 지급보험금의 3개월분 자료) 동사 제시

2. 등급변동요인

보험부채 산출기준 강화, 부실자산 처분 과정에서의 손실 인식 등으로 높은 이익변동성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나 자산건전성 지표는 개선 추세를 보일 것이다. 보험부채 산출기준 강화, 경과조치 효과의 점진적 소멸 등 K-ICS비율 하방압력이 지속되고 있고 기본자본 규제 대응 부담도 큰 편으로, 유상증자 등 자본확충을 통한 자본적정성 제고가 필요하다.

[표 5] 등급변동요인

하향 변동요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본의 질적 제고 지연 ✓ 수익성 및 자산건전성 저하
----------------	--

주) 상기 등급변동요인은 장기신용등급 기준임

구분 (개별/별도 기준)	3년 평균	연도별			
	2023~2025	2023	2024	2025	2026.03
총자산세전이익률	1.1	2.5	0.2	0.4	-0.8
고정이하자자산비율	2.5	2.9	2.9	1.7	1.8
K-ICS비율(경과조치전)		174.8	125.8	126.1	131.9
K-ICS비율(경과조치후)		213.2	154.6	159.5	164.4

[유의사항]

- (1) 한국기업평가(주)(이하 ‘당사’)가 제공하는 신용등급은 특정 금융상품, 금융계약, 발행자 등의 상대적인 신용위험에 관한 분석 시점에서의 당사의 의견입니다. 또한, 당사가 제공하는 보고서 등의 제반 연구자료(이하 ‘간행물’)는 상기 특정 금융상품, 금융계약, 발행자 등의 상대적인 신용위험에 관한 당사 또는 필자 개인의 견해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신용등급 및 간행물은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신용위험을 제외한 다른 위험(금리나 환율변동 등에 따른 시장가치 변동위험, 해당 증권의 유동성위험, 내부절차나 시스템으로 인해 발생하는 운영위험)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습니다. 또한 신용등급 및 간행물에 포함된 당사의 의견은 현재 또는 과거 사실에 관한 진술이 아니며, 당사 고유의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대상의 미래 상황능력 등에 대해 예측한 독자적인 견해로서, 이러한 예측정보는 실제 결과치와 다를 수 있습니다. 신용등급 및 간행물은 환경변화 및 당사가 정한 기준에 따라 변경 또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
- (2) 신용등급 산출 및 간행물 발간(이하 ‘신용평가업무 등’)에 이용되는 모든 정보는 평가대상회사 또는 기관이 제출한 자료와 함께 각종 공시자료 등의 자료원으로부터 수집된 자료에 근거하고 있으며, 당사는 제3자 요청 신용평가 등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용등급 산출 시 제출자료에 거짓이 없고 중요사항이 누락되어 있지 않으며 중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내용이 들어 있지 않다는 확인서를 평가대상회사 또는 기관으로부터 수령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평가대상회사 또는 기관 및 이들 대리인이 정확하고 완전한 정보를 적시에 제공한다는 전제 하에 신용평가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으며, 신용평가업무 등 과정에서 이용하는 정보에 대해 별도의 실사나 감사를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제공된 정보의 오류 및 사기, 허위에 따른 결과에 대해 당사는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 (3) 당사는 신용평가업무 등 과정에서 이용되는 정보에 대해 별도의 검증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분석자·분석도구 또는 기타요인에 의한 오류 발생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당사는 신용등급 및 간행물의 정확성 및 완전성을 보증하거나 확약하지 않습니다. 당사 간행물의 모든 정보들은 신용평가업무 등에 필요한 주요한 판단 근거로서 제시된 것으로 평가대상에 대한 모든 정보가 나열된 것은 아니며, 법률에 의하여 인정되지 않는 이상 당사 신용등급 및 간행물 상의 정보이용으로 발생하는 어떠한 손해 및 결과에 대해서도 당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4) 당사는 금융상품의 매매와 관련한 조언을 제공하거나 투자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당사의 신용등급 및 간행물은 특정 유가증권의 매수, 매도 혹은 보유를 권유하는 정보가 아니며 시장 가격의 적정성에 대한 정보도 아닙니다. 당사의 신용등급 및 간행물은 그 내용으로 이용자의 투자결정을 대신할 수 없고 금융상품의 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를 판단하기 위한 증빙자료로도 사용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정보이용자들은 스스로 투자대상의 위험에 대해 분석하고 평가한 다음 그 결과에 따라 각자 투자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여야만 합니다. 특히, 당사의 신용등급과 간행물은 시장 전문가를 일차적인 이용대상으로 하고 기본적으로 개인투자자에 의한 이용을 전제로 하고 있지 않아 이를 이용하여 개인투자자 스스로 투자의사결정을 내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반드시 외부전문기관의 도움을 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공시되지 않은 신용등급이나 제3자 요청 신용평가에 따라 산출된 신용등급의 경우 신용평가 요청인 이외에는 해당 신용등급을 믿고 이용하여서는 안 된다는 점을 밝혀 둡니다.
- (5) 본 보고서의 내용은 필자의 개인의견으로 당사의 공식의견이 아닙니다.

Copyright 2026, Korea Ratings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97 대표전화: 368-5500 FAX: 368-5353.

본 보고서에서 제공하는 모든 정보의 저작권은 한국기업평가(주)의 소유입니다. 따라서 어떠한 정보도 당사의 서면동의 없이 무단으로 전재되거나 복사, 인용(또는 재인용), 배포될 수 없습니다.